

2023 May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위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 목차

---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

# 금리

## 4월 동향

OPEC+ 원유 감산에도 3월 미 CPI 큰 폭 감소와 침체 우려에 크게 하락 하지만, 글로벌하게 이어진 물가 상승의 연준 긴축 결정으로의 전이 우려와 여전히 높은 PCE 물가 수준 등의 영향 반영하며 상승 전환 마감

OPEC+의 원유 감산 소식 반영하며 상승 출발 후, 미국내 경기지표 부진에 따른 침체 이슈 등으로 급락 시현한 국면

한은의 연내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매파 성향 속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어지는 양상이 연준의 매파 성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 측면이 더해지며 상승 전환

미 은행 시스템 우려 재부각 등의 안전자산 선호 반영, 급락 시현 후, 미 PCE 물가 감소에도 여전히 목표와 큰 갭차이 인식에 따른 긴축 우려 반영 등으로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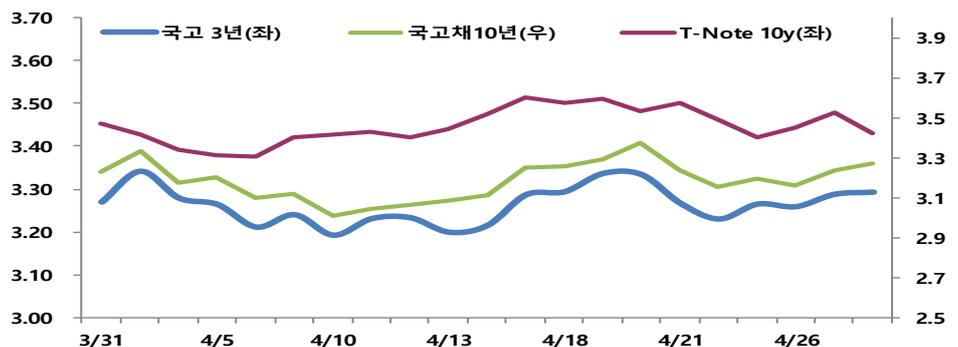
4월 평균

국고채(3년): 3.26%

T-Note(10년): 3.46%

- 월초, OPEC+의 감산 소식이 인플레이션을 키울 것이라 우려 등으로 국고채 금리 상승 출발 후, 이어진 미 경기 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부각 등이 반영되며 국내외 금리 급락 시현
  - 월 초,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소식이 전해지며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소세가 둔화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 속에 연준 매파성향 자극 가능성 등을 반영하며 국내외 금리 급등세 출발
  - 하지만, 미국 민간 고용과 제조업지표 부진 발표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부각되며 국고채금리는 급락세 나타난 후, 3월 미 비농업고용 발표 대기하며 변동성 커진 양상
- 중반,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 이후 매파적 스탠스 반영에 따라 상승 지속 후, 미 3월 CPI의 큰 폭 하락과 3월 의사록 경기침체 우려 반영하며 하락 전환했으나, 영국 등에서의 높은 물가 상승세 영향에 따른 연준 매파 우려 등으로 재차 상승 흐름 전환
  - 중반, 3월 미 비농업고용지표의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진 가운데 한은 금통위 3.5% 금리 동결 속 향 후 금리인하에 대한 위원들의 부정적 인식 등이 매파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전환
  - 이어 미 3월 CPI의 큰 폭 하락과 3월 의사록에서의 일부 위원들의 경기침체 우려 인식 등을 반영하며 하락했지만, 영국 등에서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지속에 따른 영향이 연준 매파 성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재차 상승한 양상
- 후반, 미 경기선행지표 급락에 따른 침체 이슈와 은행 시스템 우려 재부각 등에 연동하며 크게 하락한 국고채금리는 국내 1분기 성장을 다소 양호한 국면 전환 영향을 반영 상승 전환 후, 미 PCE 물가의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의 감소세를 반영한 추가 상승 흐름 속에 마감
  - 후반, 미 경기 선행지표 급락 등에 따른 경기침체 이슈 반영하는 가운데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 이어 은행권 시스템 우려 재부각에 의한 위험회피 강화 요인도 국고채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이어 국내 1분기 성장률이 다소 양호한 흐름을 보인 측면이 반영되며 상승 전환 후, 3월 미 PCE 물가가 전년대비 4.2% 상승으로 감소폭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목표와 차이가 크다는 연준 인식과 근원 PCE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는 측면 등이 반영되며 상승 흐름 이어지며 마감

###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 5월 전망

연준과 한은 5월 통화정책이 여전히 물가 우려 반영하겠지만, 성장 우려 고려 다소 비둘기 스탠스 전환이 예상. 또한, 미 부채한도 이슈 등 불확실성 상존도 다소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평균	1Q23	2Q23	3Q23	4Q23
국고채(3y, %)	3.50 <sup>(F)</sup>	3.25 <sup>(F)</sup>	3.10 <sup>(F)</sup>	3.0 <sup>(F)</sup>

5월 FOMC 이후 연준은 금리 동결 기조로의 전환이 예상. 다만, 금리인하에 대한 언급은 부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강한 소비 및 고용 지표 시점에 긴축 우려가 부각될 여지 상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상존한 미 상업용 부동산 이슈 등에 의한 실물 경기 침체로의 전이 우려 등이 국내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5월 국고채(3Y) 금리는 3.25%~3.40% 예상

- 연준의 5월 FOMC에서의 베이비스텝 금리인상 이후, 금리 동결 기조에 대한 시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다소간의 시차를 유지하며 미 고용과 소비지표 등이 다소 견조함을 보일 가능성 등이 여전히 국내외 금리 하단을 지지할 요인으로 예상
  - 5월 FOMC에서 최근 물가의 기초적 둔화를 감안 베이비스텝 금리 결정을 끝으로 금리 동결 피벗에 대한 시사가 일부 언급될 것으로 예상
  - 상기 요인에 따른 시장의 연준 긴축 기조 완화 기대 강화가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나, 당분간 여전히 고용과 소비지표 및 근원 물가에 대한 우려 반영 가능성 등이 금리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6월 시한으로 예정된 미 행정부 부채한도 이슈 확대 시점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과 최근까지 상존한 미 상업용 부동산 이슈에 따른 불안 요인의 실물시장 전이 가능성 등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요인 등이 국내외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미 행정부의 6월 시한 부채 한도 협상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속에 해당 이슈 확대 시점에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강화가 예상되는 측면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또한, 최근 미국 주요 은행 인수에도 상업용 부동산 회사 부도 등 잠재 불안 요인 상존에 따른 실물 시장 전이로부터의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 측면도 국내외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 대내적으로 한은은 5월 FOMC의 베이비스텝 이후 동결 기조 전환, 물가의 추세적 하락 전망 지지 요인 속에 드디어 국내 경기 동력 우려로 기조를 전환할 전망 속에 3회 연속 동결 예상 이러한 금통위의 비둘기적 전환 가능성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 주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연준의 5월 금리 결정이 베이비스텝 경로를 밟을 전망 속에 국내 물가 경로 또한 한은 전망에 부합 하면서 5월 금통위는 3회 연속 금리 동결이 예상
  - 여기에 국내 무역수지 14개월 연속 적자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폭이 커진 상황. 또한 중국 리오프닝의 제한적 효과 및 최근 중화권 리스크의 직접적 충격 가능성 등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반영한 비둘기 스탠스 전환 가능성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내 여전히 견고한 소비와 고용지표 결과 등이 연준 추가 긴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li> <li>· 호주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인상 기조 전환 등에 따른 긴축 통화정책 영향의 전이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세적 감소세 예상되는 미국의 주요 물가지표</li> <li>· 연준의 5월 베이비스텝 결정 이후 금리 동결 기조에 대한 시장의 피벗 기대감</li> </ul>

자료: 하나은행

# 달러/원 환율

## 4월 동향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물가상승 압력 상존하는 가운데 대내적 경제 체질 약화와 4월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에 상승. 하지만 연고점 경신하며 고점 인식에 따른 달러 매도와 당국 경계감이 상단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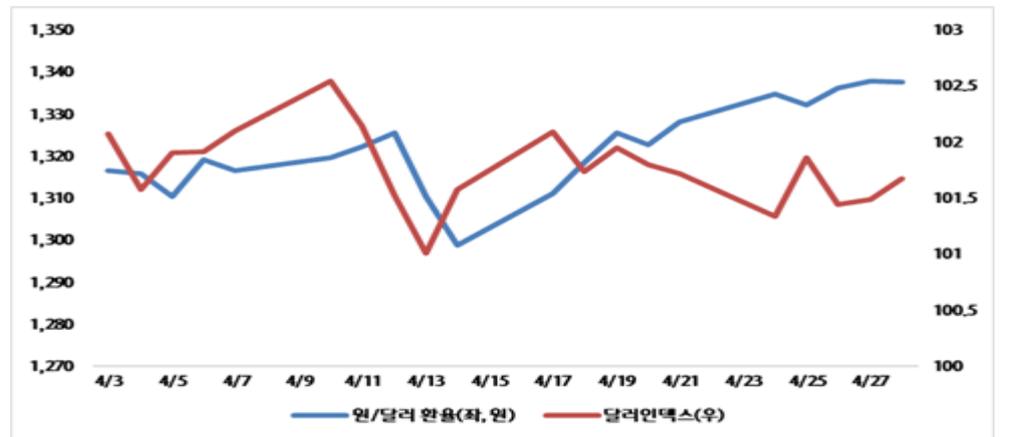
산유국 원유감산 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견조한 미 고용 상황에 추가 긴축 우려 확대되며 환율은 1,320원대 진입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와 당국 정책대응 노력에 환율 다소 하락했으나 무역수지 적자,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에 상승 흐름 지속

금융안정성 이슈에 위협피 강화되고 BOI 완화정책 결정에 따른 인화 약세 영향 등으로 상승했으나 고점 인식에 따른 수급상 달러 매도 우위, 당국 경계심리 등으로 상단 제한

- 월초, 원유감산 이슈에 물가상승 우려 확대되며 환율 상승 출발 후, 미 고용 둔화 조짐에도 실업률 하락하며 경기침체 리스크 완화된 영향으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 속 상승 지속
  - 월초 OPEC+ 감산 결정이 인플레이션 우려 자극하며 환율 상승했으나 미 ISM 3월 제조업지수 부진과 민간고용 감소 등에 연준의 긴축 스탠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소폭 하락
  - 그러나 미 3월 고용지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음에도 실업률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5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지며 상승 전환 후 1,320원대 진입
- 월 중반, 연준 긴축사이클 종료 기대와 한은의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환율 큰 폭 하락했으나 국내 경제체질 약화와 4월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의 영향 반영되며 상승
  - 중반, 한은 금통위 금리동결에도 매파적 총재 발언으로 인화 약세 다소 제한. 여기에 미 3월 CPI 둔화로 연준 긴축 가능성 다소 낮아지고 국민연금 통화스와프 체결 전해지며 하락 지속
  - 하지만 미 3월 소매판매 부진에도 기대인플레이션 급등과 연준위원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연준 피벗 기대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 지속, 4월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 반영하며 1,320원대 진입
- 후반, 경기침체 우려와 은행권 불안에 위협피 강화되며 환율 상승. 이어 수출부진, BOI 통화완화 영향 반영되었으나 고점인식 수출달러매도와 당국경계감 등으로 1,330원대 후반 등락
  - 후반, 혼재된 미 경제지표 속 지역은행 실적 부진, 부채한도 문제에 금융불안 부각된 측면이 경기위축 우려와 리스크오프 강화하며 환율 상승했으나 외환당국 구두개입과 통화스와프 개시 소식에 하락
  - 미 1분기 GDP 부진에도 견조한 소비에 따른 5월 FOMC 긴축 경계감, BOI 완화정책 유지 결정 영향 반영되며 상승했으나,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 달러 매도, 외환당국 경계감 강화 속 1,337.7원으로 마감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4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22.1  
4월말 달러/원 환율 : 1,337.7

자료: 하나은행

## 5 월 전망

최근의 중화권 리스크 요인 속 원화 경제체질 상대적 약화 등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반면, 미국 물가 둔화 및 은행권 불안 완화로 연준 피벗에 대한 시장 기대감 소폭 우위 속에 원화 강보합세 예상

평균	1Q23	2Q23	3Q23	4Q23
달러/원 환율(원)	1,280 <sup>(F)</sup>	1,295 <sup>(F)</sup>	1,310 <sup>(F)</sup>	1,240 <sup>(F)</sup>

5월 FOMC는 베이비스텝 단행이 예상. 이후 연준은 피벗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겠지만, 경기 국면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시장의 연준에 대한 금리 동결 전망을 강화할 요인으로 위험선호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

- 5월 FOMC 베이비스텝 이후, 연준의 금리 동결 피벗 예상에 따른 측면이 원화강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하지만 미 부채한도 이슈에 따른 CDS 불안이 역으로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에 달러 가치는 다소 횡보 국면 속 소폭 약세 흐름 예상
  - 5월 FOMC는 베이비스텝 결정이 예상. 하지만 최근 CPI, PCE물가 감소에도 목표와의 차이에 따라 금리동결 피벗 시사에는 다소 난색 표할 전망이나 하반기 성장 우려에 대한 표명이 예상되는 점은 시장의 위험선호 선반영을 통해 달러 약세가 다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미 행정부 부채한도 이슈가 상존하며 미 CDS 불안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점이 해당 시점에서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며 원화의 1300원대 진입 방해요인으로 판단

중국 경제 리오프닝의 효과가 국내 경제에 제한되는 가운데 대내적 무역 적자 지속에 따른 경제체질 약화와 중화권 리스크 부각 요인 등이 원화 약세를 견인할 요인으로 판단

- 중국 경제 리오프닝에도 더딘 회복세 보이는 측면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일 가운데 최근 대내적 이슈에 의한 중화권 리스크 부각 등은 원화의 상대적 약세 국면 지속시킬 요인으로 판단
  - 중국 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리오프닝에 돌입했음에도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는 측면이 최근 국내 경제체질 약화에 전이되는 양상으로, 이에 따른 경기 회복력 약화가 원화 약세를 다소 심화시킬 전망
  - 여기에 최근 내부적 이슈에 따른 중화권 이슈가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따른 외국인 우려 증대 속 자본 유출 가능성도 원화의 상대적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4월 달러/원 환율  
1,285원 ~1,325원 예상

- 최근 달러인덱스와 탈동조화되는 대표 통화로 원화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내적 경제체질 약화, 기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이 이어질 측면이 원화 약세를 다소 심화시킬 수 있겠으나, 외환당국의 강한 경계감 등에 따라 1,350원대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최근 달러 인덱스 100선 접근에도 원화가 탈동조화되며 상대적 약세 시현. 이는 대내적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 속 주요 기업들 실적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체질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국내 경제 체질의 빠른 회복에 시차가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 원화 약세 다소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국내적 요인이 원화 약세를 견인하는 측면에 따른 외환당국의 경계감이 최근 강화되는 움직임 속에 주요 컨틴전시 플랜 등의 가동을 통해 1350원선에서 상단은 크게 제한 받을 것으로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부채한도 이슈에 따른 미 CDS 불안 요인 상존으로 위험회피 심리 강화 가능성</li> <li>· 중국 리오프닝에도 국내 경제체질 회복 여건 약화</li> <li>· 중화권 리스크의 국내 전이 우려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FOMC 베이비스텝 이후 금리 동결 기조로의 피벗 가능성</li> <li>· 외환당국 경계감 강화 속 컨틴전시 플랜 가동 요인</li> </ul>

자료: 하나은행

# 이종통화

## 엔/원 전망

통화완화 고수하는 BOI 정책 결정 영향과 미국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및 연준 성장 중심 통화정책 시사 가능성 상존 속 소폭 강세 예상. 엔/원 환율은 연준 정책 경로 다소 크게 반영할 원화의 상대적 강세로 소폭 하락 예상

4월 달러/엔 평균환율 : 133.5  
4월 엔/원 평균환율 : 990.4

4월 엔/원 예상범위 : 970-990원

- (엔화동향) 글로벌 경기침체 분위기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강세 출발. 이어 BOI 총재 비둘기 스탠스로 약세 전환. 중반, 미 물가 둔화 가능성에 따른 엔캐리수요 감소와 경기침체 우려 속 위험회피 강화 반영하며 강세 전환. 하지만 우에다 BOI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 의지 강조하면서 미-일 금리차 확대 가능성 증가 측면이 엔화 약세 견인. 후반, 미 지역은행 리스크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재차 강세 전환했으나 BOI 통화정책 유지 결정으로 약세 마감
- (엔/원 전망) BOI가 현 수준의 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 않았던 이전 금정위 영향이 다소 이어질 측면은 엔화 약세를 견인할 요인. 여기에 미 주요 은행권 이슈 완화 등도 엔화 강세 압력을 다소 완화하겠지만, 미국 부채한도 이슈 불확실성 상존에 따른 해당 이슈화 시점에 엔화 수요 강화를 통해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여기에 대외적 5월 FOMC 이후 다소 성장 중심 스탠스가 예상되는 연준 정책 방향성도 엔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 통화정책 정상화 서두르지 않았던 이전 금정위 영향이 엔화 약세를 지지하겠지만, 미 부채한도 협상 이슈와 연준의 성장 중심 경로 전환 스탠스 등의 강세 요인이 상호 상충하며 135-137엔대 흐름 예상
  - 엔/원 환율은 5월 FOMC 이후 성장 중심 기조로의 전환 시사가 동반될 경우 그간의 달러 대비 원화의 탈동조화가 다소 약화되며 소폭의 원화 강세 예상에 따라 970-990원 전후 흐름이 예상

## 유로/원 전망

경기회복력 약세에도 현 상황에서 유로존의 경기선행지수가 미국보다 다소 우위인 가운데, 여전히 높은 물가 대응의 ECB 매파 성향 지속과 연준의 5월 FOMC 이후 성장 중심 스탠스 전환 가능성 등으로 유로 소폭 강세 예상

4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0966  
4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50.0

4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55~1,495원

- (유로화 동향) 유로존 근원 CPI가 5.7%로 최고치 기록하는 등 물가지표 고공 지속 상황에 ECB 상대적 매파 통화정책 시행 예상으로 강세 출발. 이어 미 고용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속 유로존 4분기 경상수지 급감 소식 반영되며 약세 전환. 중반, 미 3월 CPI는 감소한 반면 독일 CPI는 예상치 부합에 ECB 긴축기조 지속 가능성 확대된 측면이 유로화 강세 견인했으나 Fed의 매파적 스탠스 재차 강화로 약세 전환. 후반, ECB 빅스텝 가능성 제기되며 강세 흐름 보였으나 미 지역은행 이슈에 따른 글로벌 위험회피 분위기에 상승폭 다소 제한되며 마감
- 유로존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하회한 0.1%증가(전월비)에도 독일 산업생산이 최근 반등한 가운데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반영한 매파적 통화 스탠스 유지 가능성 등으로 유로화는 단기 강세 흐름 예상. 여기에 연준의 5월 FOMC 이후 다소 비둘기 경로로의 전환 예상 등도 유로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 미 부채한도 불확실성 등 위험회피 요인 등에도 여전히 물가 대응 매파적 ECB 기조 속 강세 예상
  - 유로/원은 FOMC 이후 기조가 비둘기 적더라도 상대적 ECB 매파 성향에 소폭 상승 기조 유지될 듯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3년 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b>1</b> 휴일 근로자의 날 (한, 중, 유, 흥, 싱) May bank Holiday (영) 한 무역수지 (-\$4620m) 미 ISM 제조업지수 (46.3%) 일 소비자대지수 (33.9)	<b>2</b> 휴일 근로자의 날 (중) 한 CPI (전년대비) (4.2%) 미 제조업수주 (-0.7%) 유 CPI 예상 YoY (6.9%) 호 RBA 목표금리 (3.6%)	<b>3</b> 휴일 근로자의 날 (중) Constitution Memorial Day (일) 미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 (53.5) 유 실업률 (6.6%)	<b>4 美 FOMC</b> 휴일 Greenery Day (일) 미 FOMC (한국시간 04:00) 무역수지 (-\$70.5b) 신규실업보험청구자수 유 ECB 기준금리 PPI 전년비 (13.2%) 중 차이신 중국 PMI 종합 (54.5) 호 무역수지 (A\$13870m)	<b>5</b> 휴일 어린이날 (한국, 일본) 미 실업률 (3.5%) 비농업부문고용자수변동 (236k) 유 소매판매 YoY (-3.0%)	<b>6</b> 미 소비자신용지수 (\$15.29b)
<b>7</b> 중 외환보유액 (\$3183.87b)	<b>8</b>	<b>9</b> 중 무역수지	<b>10</b> 한 금리기준일 실업률 (2.7%) 미 CPI (전년대비) (5.0%) 독 CPI 전년비	<b>11</b> 미 PPI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전년비 (3.4%) CPI (전년대비) (5.0%)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일 경상수지 (¥2197.2b) 중 CPI 전년비 (0.7%) PPI 전년비 (-2.5%) 영 기준금리 제조업 생산 전년비 (-2.4%)	<b>12</b> 한 광의통화(M2, 평잔) (0.3%) 독 경상수지 (22.6b)	<b>13</b>
<b>14</b>	<b>15</b> 미 뉴욕제조업지수 (10.8) 유 산업생산 WDA YoY (2.00%) 일 PPI YoY (7.2%)	<b>16</b> 미 소매판매 (자동차 및 가스 제외) (-0.3%) 기업채고 (0.2%) 중 광공업생산 YoY (3.9%) 소매판매 YoY (10.6%)	<b>17</b> 미 신규주택착공건수 (1420k) 유 CPI 전년대비 (6.9%)	<b>18</b> 미 신규실업보험청구자수 기준주택매매 (4.44m) 경기선행지수 (-1.2%) 일 무역수지 (-¥754.5b) 호 실업률 (3.5%)	<b>19</b> 일 전국 CPI (전년대비) (3.2%) 독 PPI 전년비 (7.5%)	<b>20</b>
<b>21</b>	<b>22</b>	<b>23</b> 한 소비자동향지수 (95.1) 미 S&P 글로벌 미국 종합 PMI 신규주택매매 (683k)	<b>24</b> 한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 (72) 영 CPI (전년대비) (10.1%)	<b>25 韓 금통위</b> 한 기준금리 PPI 전년비 (3.3%) 미 FOMC 회의록 신규실업보험청구자수	<b>26</b> 휴일 : 석가탄신일 (중) 미 개인소비지출 PCE 디플레이터 전년비 일 PPI 서비스 YoY(1.6%) 도쿄 CPI (전년대비)	<b>27</b> 휴일 : 부처님오신날 (한)
<b>28</b>	<b>29</b> 휴일 : Memorial Day (미) Spring Bank Holiday (영)	<b>30</b> 미 소비자신뢰지수 (101.3) 일 실업률	<b>31</b> 미 시카고 PMI지수 일 광공업생산 YoY 소비자기대지수 중 종합 PMI 호 CPI YoY (6.3%)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안은 이전치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